

“방대한 세계관, 과연 영화로 구현될까 싶었죠”

20일 개봉 ‘외계+인’ 도사 무렵 역 류준열 “최동훈 감독님과 작품하고 싶은 목표 이뤄”

최동훈 감독 신작 ‘외계+인’ 속 도사 무렵(류준열·사진)은 허풍을 떨지만 믿지 않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모한 행동을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믿음직스럽다. 감독의 전작에서 배우 강동원이 연기한 전우지가 떠오른다.

15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류준열(사진)은 “첫 등장 장면만 보더라도 두 인물은 확연히 다르다”며 “전우지는 구름을 타고 왕궁에 도착해 왕을 조롱할 정도의 능력을 갖췄지만, 무렵은 개울가에서 동네 사람들과 탁구를 마시는 열치기 도사”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20일 개봉을 앞둔 ‘외계+인’ 1부는 고려 말과 현재 사이에 놓인 시간의 문이 열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류준열은 높은 현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소문 속의 신검을 쫓는 고려시대 도사 무렵을 연기했다.

그는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이 방대한 세계관을 영화로 만든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면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 웃음과 감동, 짜릿함까지 있는 작품이었다”고 했다.

“감독님께서 인간과 인연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인간을 따로 떼어내 강조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지구를 구하려 한다는 게 참 좋았어요.”

‘외계+인’은 고려 말부터 현재까지, 또 지구에서

우주까지 광범위한 사·공간을 넘나드는 SF다. 거대한 우주선이 등장하고, 하늘 한가운데 뿔린 미지의 문에서 자동차가 날아오는 등 화려한 볼거리가 더해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떠올리게 한다.

류준열은 “한국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도전한 영화”라면서 “영화인으로서 즐겁고 관객으로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분명 과거에도 우주선을 타고 내려왔을 텐데 그때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이 작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충분히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3부를 찍자고 감독님을 조르는 중입니다. (웃음)”

배우가 되기 전부터 최동훈 감독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류준열은 처음 작품 제의를 받고 “숨이 턱 막히면서 감격스러웠다”고 떠올렸다.

“최동훈 감독님과 꼭 작품을 하고 싶다”는 게 배우로서 제 목표 중 하나였어요. 감독님 작품을 다



영화 ‘외계+인’ 1부 스틸컷.

좋아하지만 ‘범죄의 재구성’ (2004)은 컷 하나하나, 대사 한 줄 한 줄 달달 외울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과 작품을, 더군다나 두 작품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짜릿했죠.”

‘외계+인’은 약 13개월 동안 1부와 2부를 동시에 촬영했다. 2부는 내년 개봉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두 편 다 굉장히 흥미롭게 봤다”는 류준열은 이번 작품을 통해 최 감독의 작품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를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영화는 이런 거야”라고 말하는 듯한 감독님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요. 영화에 대한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기에 이렇게 작품을 찍을 수

있고, 에너지를 배우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또 스크린에 묻어나기 때문에 관객이 최동훈이란 감독을 사랑하지 않나 싶어요. 관객들도 이번 작품을 통해 감독님의 세계관, 이야기꾼으로서의 면모를 면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불륜·출생의 비밀 버무린 막장 전개 ‘블랙의 신부’

상류사회 복수와 욕망 이야기 스토리 개연성 부족 평가

사랑이 아닌 조건을 거래하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두 여자가 각기 다른 욕망을 품고 회원으로 가입한다.

지난 15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블랙의 신부’는 상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진유희(정유진 분)와 그에게 복수의 칼을 가는 서혜승(김희선)의 대립을 그려냈다.

극은 결혼정보회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가입비가 1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달한다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맥스’의 회원들은 모두 남자의 최고 등급을 가리키는 ‘블랙의 신부’가 되길 열망한다.

등 떠밀려 회원이 된 서혜승은 맥스에서 진유희를 마주하고, 본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류 사회에 편입한다.

진유희는 서혜승의 사망한 남편과 불륜 관계였으며, 그를 죽임으로 내몬 장본인이기도 하다.

불륜과 복수, 상류층의 스캔들과 출생의 비밀 등 막장의 요소를 골고루 갖춘 ‘블랙의 신부’는 특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블랙의 신부’ 스틸컷

별한 반전 없이 예측할 수 있게 전개된다. 결혼정보회사라는 신선한 설정으로 상류 사회의 민낯을 고발한다는 시도는 좋았으나 개연성이 부족해 좀처럼 이입이 어렵다는 평이 나온다.

서혜승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내연녀 진유희와 대립한다는 설정이나 진유희가 감정싸움을 벌였던 서혜승을 파티에서 가면 하나 썼다고 알아보지 못한다는 부분은 공감하기

어려웠고 억지스럽다는 반응이다.

인물 설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탓에 극의 흐름도 매끄럽지 못하다. 배우들의 연기는 빼어났지만 구태연하고 작위적인 대사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했다. 표독스럽고 불안에 떠는 악역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낸 정유진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뽐낸 차지연의 열연은 느슨해진 극의 긴장감을 그나마 살려냈다. /연합뉴스

팔씨름 챔피언 1억

JTBC 예능 ‘오버 더 톱’



JTBC는 우승 상금 총 1억 원을 걸고 팔씨름 챔피언을 뽑는 예능 ‘오버 더 톱-맨즈 챔피언십’ (이하 ‘오버 더 톱·사진’)을 하반기 방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버 더 톱’은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팔씨름 챔피언 선발전으로 전국의 팔씨름 고수들이 모여 오직 팔 힘 하나로 최강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이다.

예능 ‘싱어게인-무명가수전’,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호리네 민박’ 등 JTBC 대표 프로그램을 제작한 윤현준 CP가 기획을, 박성환 PD가 연출을 맡았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챔피언들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연예인, 운동선수, 군인, 직장인, 학생 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성이다. 지원자들은 8월 중 예선을 치르게 된다. /연합뉴스

원더걸스 출신 선예

첫 솔로 음반 26일 발매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예(SUNYE·사진)가 데뷔 후 첫 솔로 음반을 발매한다고 13일 소속사 블랙베리크리에이티브가 밝혔다.



선예는 신보 ‘제뉴인’ (Genuine)에 대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최대한 진실하게 담으려고 노력한 음반이라고 설명했다.

선예는 첫 솔로 음반 발매에 앞서 오는 19일 리드 싱글 ‘글래스 하트’ (Glass Heart)를 발매한다.

선예는 지난 2월 종영한 tvN 예능 ‘엄마는 아이돌’에 출연해 9년 만에 무대에 서기도 했다.

선예의 첫 솔로 음반 ‘제뉴인’은 오는 26일 오후 6시께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